

프로야구 700만 관중 시대 열려면

## KBO “야구장 확충 필수”

프로야구 700만 관중 동원을 위해서는 야구장 좌석의 수용규모 확대 등 제반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야구발전실 행위원회가 9일 한·미·일의 좌석 점유율과 평균관객 수 비교를 통한 700만 관객돌파 가능성을 예측,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1시즌 3개국 좌석 점유율은 미국이 69.9%(평균 관객수 3만356명)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65.9%, 한국이 65.7%를 기록했다. 일본이 좌석점유율에서 한국보다 0.2% 근소하게 앞섰지만 평균 관객수는 각각 2만4966명과 1만2801명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위원회는 또 2012시즌 700만 관객 돌파를

위해서는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당 평균관객이 357명 증가하거나, 좌석점유율이 0.5%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66.2%의 좌석점유율과 경기당 평균 1만3158명의 관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국내 좌석 점유율이 미국·일본에 균접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700만 관객 돌파를 낙관할 수 있지만, 대전구장 좌석수가 지난해에 비해 3500석이 증설된 1만4000석으로 늘어난 것은 700만 관객달성을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관객 수용구장인 LA의 디자스타디움(5만6000석)을 포함해 4곳이 5만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3만석 규모 이하의 구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본도 도쿄돔과 고이센구장이 5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3만석 이하의 구장은 라쿠텐의 훌구장(2만2000석)이 유일하다.

반면 국내의 경우 2만8500석의 부산 사직구장이 가장 큰 구장이고 문학이 2만8000석, 잠실이 2만5500석 규모다. 이외에 목동구장(1만4000석), 무등경기장(1만3400석), 대구구장(1만석), 대전구장은 2만석 미만이다.

국내 야구장이 미국, 일본의 좌석점유율과 대등한 수치를 보인다면 수용규모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은 700만 관객 돌파를 노리는 야구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용병 앤서니 첫 출격 합격  
KIA 오늘 NC와 연습경기

KIA 타이거즈의 캠프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 캠프를 꾸린 KIA가 9일(한국시간) 두 번째 훈련을 치렀다. 이날 경기에서 훈팀은 3타수2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3번 타자 김원섭을 앞세워 6-3으로 승리를 거뒀다. 훈팀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이적생 박준수는 2011 1회안타 2사3구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훈선수가 됐다.

신입 외국인 투수 앤서니와 재활을 끝내 학습형도 첫 출격에 나섰다.

앤서니는 백팀 첫 투수로 나와 1이닝을 소화했다. 26개의 공을 던진 앤서니는 2피안타 1사3구로 1실점을 허웠지만 첫 등판에서 146km를 기록했다.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한 앤서니는 커브와 체인지업 등도 선보이며 첫 점검을 마쳤다.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했던 학습형도 145km의 강속구를 뿐이며 첫 등판을 소화했다. 학습형은 2011년 동안 11명의 타자를 상대해 3피안타 3사3구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두 차례 청백전을 통해 몸을 푼 KIA는 10일 NC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프리그 일정에 돌입한다. 애리조나에서 NC, 네센, 두산과 4차례 대결을 갖는 KIA는 이후 오카와로 자리리를 옮겨 22일부터 주니치·요코하마·삼성·한화 등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2012년의 윤곽을 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배구 승부조작 수사  
올림픽대표팀 구성 차질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영향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예선전에 나설 남녀 배구대표팀 구성이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배구협회 이준우 전무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최대한 빨리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구협회는 애초 이달 중 남녀 대표팀을 구성해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구지검이 2009~2010시즌 V리그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현직 남자 프로 선수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8일 오후 두 명의 현직 선수를 추가로 체포하면서 일정이 어그러지게 됐다.

특히 8일 체포된 2명은 몇 차례 태극마크를 달았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선수여서 이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표팀 구성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배구협회는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일단 대표팀 구성 전보를 보류한 채 수사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 전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대표 선수들이 연루되지 않았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예선전은 여자부는 5월 하순, 남자부는 6월 상순 시작된다.

/연합뉴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자말 크로포드(왼쪽)가 9일 포틀랜드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 휴斯顿 로키츠와의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양시청 활동준

### 亞청소년 볼링 3관왕

광양시청 활동준이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활동준은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2인조, 4인조 단체전의 개인 접수 합산에서 4106점(에비리지 228.11)을 기록, 남자 개인종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류지훈(광양시청)이 4103점(227.94)으로 2위, 최태승(부산시청)이 4106점(225.56)으로 3위에 올라 한국 선수들이 개인종합 금·은·동메달을 모두 가져갔다.

활동준은 류지훈, 최태승, 차인호(한체대)가 조를 이뤄 참가한 남자 4인조 단체전에서도 6개임 합계 5200점을 기록, 일본(5032점)을 2위로 밀어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 종합에서는 강수진(부평구청)이 개인전과 2·4인조 경기 접수 합계 4034점(224.11)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남녀부 개인종합 동반 우승을 일궜다.

이어 황연주(양주시청)가 3898점(216.56)으로 은메달, 임소현(율산대)이 3891점(216.17)점으로 동메달을 각각 거머쥐었다.

여자 4인조 단체전에서도 강수진, 황연주, 임소현, 손혜린(송탄고) 조가 합계 5203점으로 2위 펠리핀(4904점), 3위 일본(4741점)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남자 개인전과 2·4인조, 개인종합 등 지금까지 치른 8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 2회 연속 종합 우승을 확정했다.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 종목으로 개인종합 순위 상위 16명이 겨루는 마스터즈에서 동반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 대한씨름협회 ‘최우수선수’ 이슬기

이슬기(현대삼호중공업)가 대한씨름 협회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대한씨름협회는 9일 작년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와 지도자를 선

정해 발표했다.

최우수선수의 영예는 지난해 설날장사대회 보은장사대회에서 우승하고 현하장사대회까지 석권한 이슬기에게 돌아갔다.

체급별 우수선수로는 장성복(백두급·동자구청), 김기태(한리급·현대삼호중공업), 임태혁(금강급·수원시청), 이진형(태백급·율산동구청)이 각각 뽑혔다.

이재안(용인백오쌀)은 승률상(21승1패)을, 현대삼호중공업 김은수 감독은 감독상을 받는다. 최우수 아마추어선수에는 최성환(동아대)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 2월19일(일) 2월22일(수) 2월25일(토)

### 대한씨름협회 ‘최우수선수’ 이슬기

T.010-7750-7210, 010-9602-3925, 010-5667, 062)652-5512 T.011-616-6300, 010-3901-5667, 062)652-5512 다음카페 : 광주청룡산악회 T.011-646-3450, 010-2683-6666

T.011-646-3450, 010-2683-6666

다시신용협동조합 피산종결 공고

사 건 : 2015하반기 피산종고

체 무자 : 다시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0번지 BYC빌딩 6층

파산관재인 : 고영인

구 파산관재인 : 2006. 4. 1. 법률 제 742호로 폐지되며 전의 것 제25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 문 :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합니다.

2. 이 유의 요지 :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 집회는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하고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2월 6일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강호인

판사 한종환

2월26일(일) 2월29일(수)

▲광주한빛산악회 영암 월출산(시산제) 풍

▲광주청룡산악회 경남 진주-광재산(420m) 2월22일(수) 74150분 백운동 토다리 풍

▲광주한빛산악회 2월25일(토) 지리산 7시30분

</div